

◆ [Focus] 2022년도 미국 국내외 직접투자 분석

◆ [What's News]

- (IRA) WSJ, 美 인플레이 감축법 최대 수혜자로 한국 등 외국 기업 지목
- (투자규제) 해외투자 심사 상원 법안, NDAA 개정안 반영 관련 진행현황
- (공급망) UPS 노조, 임금 인상안을 두고 8.1부터 파업 가능성 제기
- (무역협정) 피터슨연구소, IPEF·CPTPP 동향 논의를 위한 웨비나 주최
- (인공지능) 7개 주요 美 AI 기업, 안전한 AI 개발 의지 강조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(FDI) 2022년도 미국 국내외 직접투자 분석

#### 1. 개요

□ 현지 시각 7.20(목), 미국 상무부 '22년 직접투자(FDI) 통계 발표

- '22년 말 기준 미국의 해외 FDI 포지션(누적)은 전년 대비 3.3% 증가, 같은 기간 FDI 유치 포지션도 4.3% 증가

- '22년 해외 FDI 유출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, 유입은 감소세 돌입

\* FDI 유출 증감 : '20년 612% ⇒ '21년 21.9% ⇒ '22년 32.3%

FDI 유입 증감 : '20년 -52.8% ⇒ '21년 309.0% ⇒ '22년 -12.0%

- '21~22년 동안 중국·일본·우리나라·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 투자는 급증했으나,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투자는 감소세 뚜렷

\* FDI 유출 증감('21~22년) : 중국(1,204.9%), 인도(280.8%), 우리나라(95.8%), 일본(20.3%)

## 2. 상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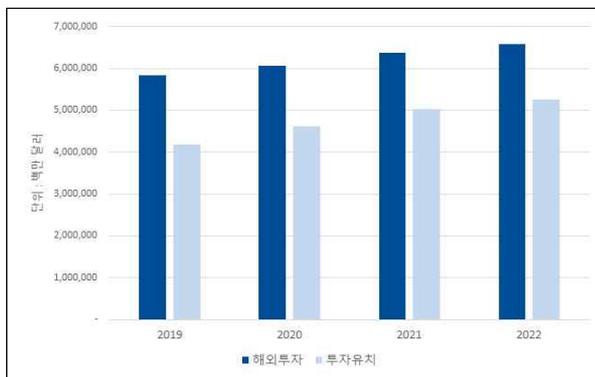
### □ (누적) 해외투자(Outbound) 및 투자유치(Inbound) 포지션 소폭 증가

- 미국의 해외 FDI 포지션(누적)은 '21년 6조 3,700억 달러에서 '22년 6조 5,800억 달러로 3.3%(2,122억 달러) 증가
  - 유럽 지역(특히 네덜란드, 영국 등)으로 1,728억 달러 해외투자 증가가 반영됐으며, 업종별로 제조업 대상 투자가 최다 증가
- 미국의 누적 FDI 유치액은 '21년 5조 400억 달러에서 '22년 5조 2,500억 달러로 4.3%(2,168억 달러) 증가
  - 대체로 영국·독일 등 유럽으로부터 누적 투자 증가(1,423억 달러)가 높게 반영됐으며,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최다 증가

### □ (Flow)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했으나, 투자유치는 조정에 돌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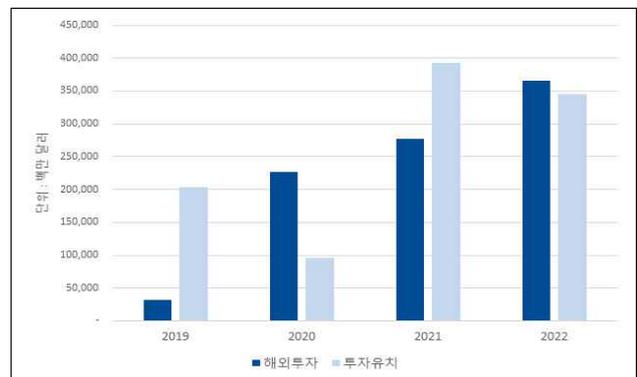
- 해외 FDI 유출(outflow)은 '21년 2,765억 달러에서 '22년 3,659억 달러로 32%(894억 달러) 이상 증가
  - 해외 직접투자는 '20년 612%와 '21년 21.9% 증가에 이어 고공행진
- 외국으로부터 FDI 유입(inflow)은 '21년 3,921억 달러에서 '22년 3,451억 달러를 기록하여 12%(470억 달러) 감소
  - '21년에 309% 급증했던 투자유입이 '22년에는 조정세로 전환

< 미국 FDI 포지션(누적) 현황 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BEA

< 미국 FDI 흐름(Flow) 현황 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BEA

□ (국별) '22년 對中 직접투자 급증, 반면 중국의 對美 투자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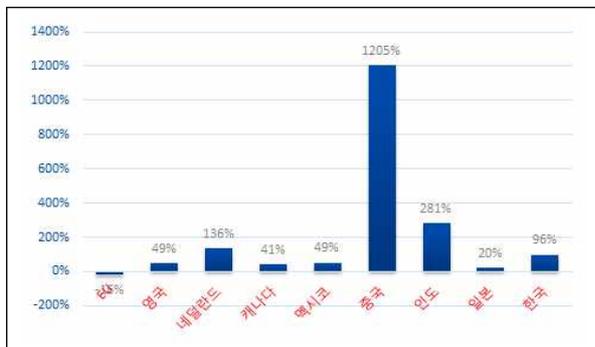
○ (유출) '22년 중국, 인도, 네덜란드, 우리나라 등 대상 FDI 증가

- 對中 투자는 '21년 -11억 달러에서 '22년 120억 달러로 급등(1,205%)
- 그 밖에 인도(280.8%), 네덜란드(135.5%), 우리나라(95.8%), 영국 (48.6%), 일본(20.0%) 등 대상 투자도 대폭 증가

○ (유입) EU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의 對美 직접투자가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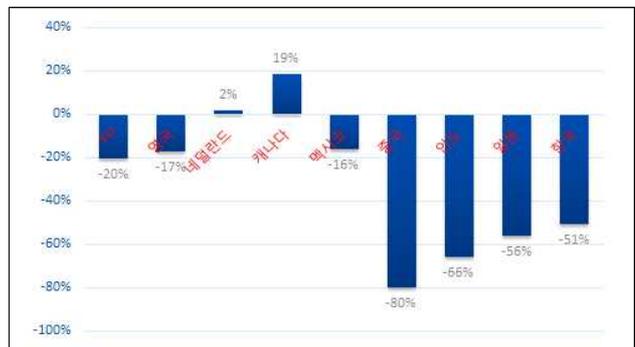
- '22년 EU와 영국으로부터 FDI는 전년 대비 각각 20.2%, 17.3% 감소
- 그 밖에 독일(-43.9%), 일본(-56.0%), 호주(-29.8%), 우리나라(-51.0%) 등으로부터 FDI 유입도 감소세로 전환

< 미국 해외 FDI 증감(2021 vs 2022) 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BEA

< 미국 FDI 유치 증감(2021 vs 2022) 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BEA

□ (업종) 해외 제조업 투자 398억 달러 ↑ ('21년 515억 ⇒ '22년 913억 달러)

○ '22년 해외 FDI는 정보업(72.4%), 광업(240.8%), 제조업(77.2%), 전문직·과학 서비스(58.9%) 등 순으로 많이 증가

- 제조업 중 제철업, 교통 장비, 식품, 컴퓨터·전자 등 투자 확대

○ 제조업, 은행업, 부동산, 소매 등 투자유치 감소세 명확

- 특히, 기계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제조업에서 투자유치 축소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■ 자료원	미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□ **(IRA) WSJ,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수혜자로 한국 등 외국 기업 지목**

- (개요) WSJ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최대 수혜자로 한국 등 외국 기업 지목
  - WSJ은 약 1주년을 맞이하는 IRA 관련, 미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1,100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그 중 60%가 넘는 금액이 한국, 일본, 중국 등 외국 기업이 관계된 프로젝트라고 보도
- (상세) 청정 산업은 미국, 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장비 기업은 해외 의존
  - IRA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관련 투자 상위 20개 중 15개, 특히 배터리 공장의 경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외국 기업과 연관됨.
    - \*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 용량 기준 연간 20억 달러 이상 세액 공제 추정
    - \*\* 한국 기업은 LG Arizona, 현대/SK Georgia, Hyundai/LG Georgia 프로젝트 언급
  - WSJ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,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위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획됐지만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장비 제조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| WSJ(7.20)

□ **(투자규제) 해외투자 심사 상원 법안, NDAA 개정안 반영 관련 진행현황**

- (개요) 상원 국방수권법(NDAA) 1차 논의(7.18)에서 개정안 반영이 제외된 해외투자 심사 법안은 해외투자 투명성 제고법\*으로 반영 가능성 높아져
  - \* 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: 밥 케이시(민주), 존 콜닌(공화) 상원의원 발의(7.13)
  - 무역관에서 현지 로펌을 통해 취득한 정보에 따르면 차주 25일(화) 오후 상원에서 표결,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최종 승인될 가능성 높음
- (상세) 국방핵심역량수호법(NCCDA) 이외에도 우려국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신규 하원 법안 준비 중 \*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
  - 앤디 바(R-Ky) 의원은 하원 재정위에서 목표 산업군 내 거래 금지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9월 이후 논의할 것으로 언급

- (참고) 현지 로펌에서는 해외투자 심사 제도와 관련 다음 가능성을 제시
  - (1) 복구된 대중 대화채널 안정화를 위한 재무장관의 행정명령 지연 요청,
  - (2) 법안 내 재무부의 '특정 거래 금지 권한 반영, (3) 행정명령 발표 시 '특정 거래 금지 조항 포함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폴리티코(7.21, 7.21)

## □ (공급망) UPS 노조, 임금 인상안을 두고 8.1부터 파업 가능성 제기

- (개요) UPS-노조(IBT)\*, 5년 협약 종료일(7.31)을 앞두고 갱신에 난항
  - \*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
  - UPS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을 20달러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두고 대치 중 \* 연방 계약자 규정 내 최소 임금: 16.2달러
- (상세) 계약 종료 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, 일부 업체들은 예상 피해 및 대처 방안 확인 중
  - 단기적으로 1,900만 개 이상의 택배 배송 마비, 장기적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 최대 0.2% 포인트 증가 및 동종 업계 내 임금 인상 파업 확산 우려
  - 아마존 관계자는 8월 이후 연말 전까지는 비수기이고, 대형 업체들은 유연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강조하며 택배 성수기인 11월 이전까지 해결되면 피해가 작을 것으로 전망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블룸버그(7.18, 7.21)

## □ (CPTPP) 피터슨연구소, IPEF · CPTPP 동향 논의를 위한 웨비나 개최

- (개요)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), IPEF·CPTPP 관련 세미나 주최(7.19)
  - \* 주요 인사: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,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
  - 참여 패널은 한국·미국이 관련 무역 의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논의

○ (상세) 한국은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IPEF 활용 방안 및 CPTPP 공식 가입 신청 고려 필요

- IPEF는 기존 자유 무역 협정이나 다자간 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제 무역 시스템 관련 신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언급
  - \* 공급망 안보, 디지털 경제, 기후 변화 대응 등 신통상 현안
- 중국 등 많은 국가가 CPTPP에 공식 가입을 요청한 지금이 한국이 CPTPP 가입을 고려할 적기로 주장
- 미국은 인도-태평양 지역 내 경제 참여를 확대해야 하지만, CPTPP 재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한유림

▪ 자료원 |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7.19), 블룸버그(7.20)

□ [인공지능] 7개 주요 AI 기업, 안전한 AI 개발 관련 의지 강조

○ (개요) 행정부는 주요 AI 개발 기업들과 안전한 개발 방향성을 논의(7.21)

\* Amazon, Anthropic, Google, Inflection, Meta, Microsoft, OpenAI

- 백악관이 AI 관련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개발 관련 정부의 우려에 대해 현지 관심 집중

○ (상세) 7개 AI 기업은 우려 완화를 위해 자발적인 관리를 약속

- 백악관 보도자료는 행정부의 우려가 크게 안전, 보안, 신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언급했으며,
- 이에 대해 7개 기업은 1) 제품 안정성 보장, 2) 최우선 보안 시스템 구축, 3) 대중 신뢰 향상 등을 약속하고,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계획 수립에 합의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한유림

▪ 자료원 | 백악관(7.21), Financial Times(7.21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Big Regional Banks Reported Stable Deposits - Great News for Investors</a> (대형 지역은행 예금잔고 안정적 - 투자자들에게 희소식)</p> <p>많은 투자자들은 지역은행 2분기 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빛나간 것으로 보여. 일부 은행은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예금잔고가 안정적으로 유지.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Top tech firms sign White House pledge to identify AI-generated images</a> (주요 테크기업, AI 생성 이미지 표기하기로 백악관과 합의)</p> <p>백악관, 금요일에 7개의 AI 기업이 자발적으로 AI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발표. 관리 수단으로는 시스템 정밀 테스트,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등이 포함</p>
The 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Biden Meets With A.I. Companies That Agreed to Safeguards</a> (바이든, 세이프가드에 동의한 AI 기업들과 회동)</p> <p>아마존, 구글, 메타 등 7개 회사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발표. 워싱턴을 비롯, 세계 각 국은 AI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검토 중임</p>
CNN	<p><a href="#">Judge sets trial date for Trump docs case</a> (연방법원, 트럼프 비밀문건 사건 관련 재판일 통보)</p> <p>연방법원, 2024년 5월로 트럼프 비밀문건 사건 재판일을 통보. 2024 대선에서 약 반년을 앞둔 시점. 트럼프 진영은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길 희망했었음</p>
USA Today	<p><a href="#">Justice Department to sue Texas over border's floating barrier, razor wire</a> (법무부, 텍사스주의 부유형 국경 철조망 대상 기소 예정)</p> <p>법무부, 애벗 주지사가 리오 그란데 강에 설치한 철조망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. 하원 민주당은 해당 행위를 비인권적이고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일전에 규탄</p>

\* 미국 동부시간 7월 21일 15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1	<a href="#">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현지 기관 분석</a>	2023.07월
US23-20	<a href="#">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</a>	2023.06월
US23-19	<a href="#">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</a>	2023.06월
US23-18	<a href="#">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</a>	2023.06월
US23-17	<a href="#">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6월
US23-16	<a href="#">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5월
US23-15	<a href="#">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</a>	2023.05월
US23-1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R&amp;D 지원 정책 방향</a>	2023.04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원(CAR) '앨런 아미사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